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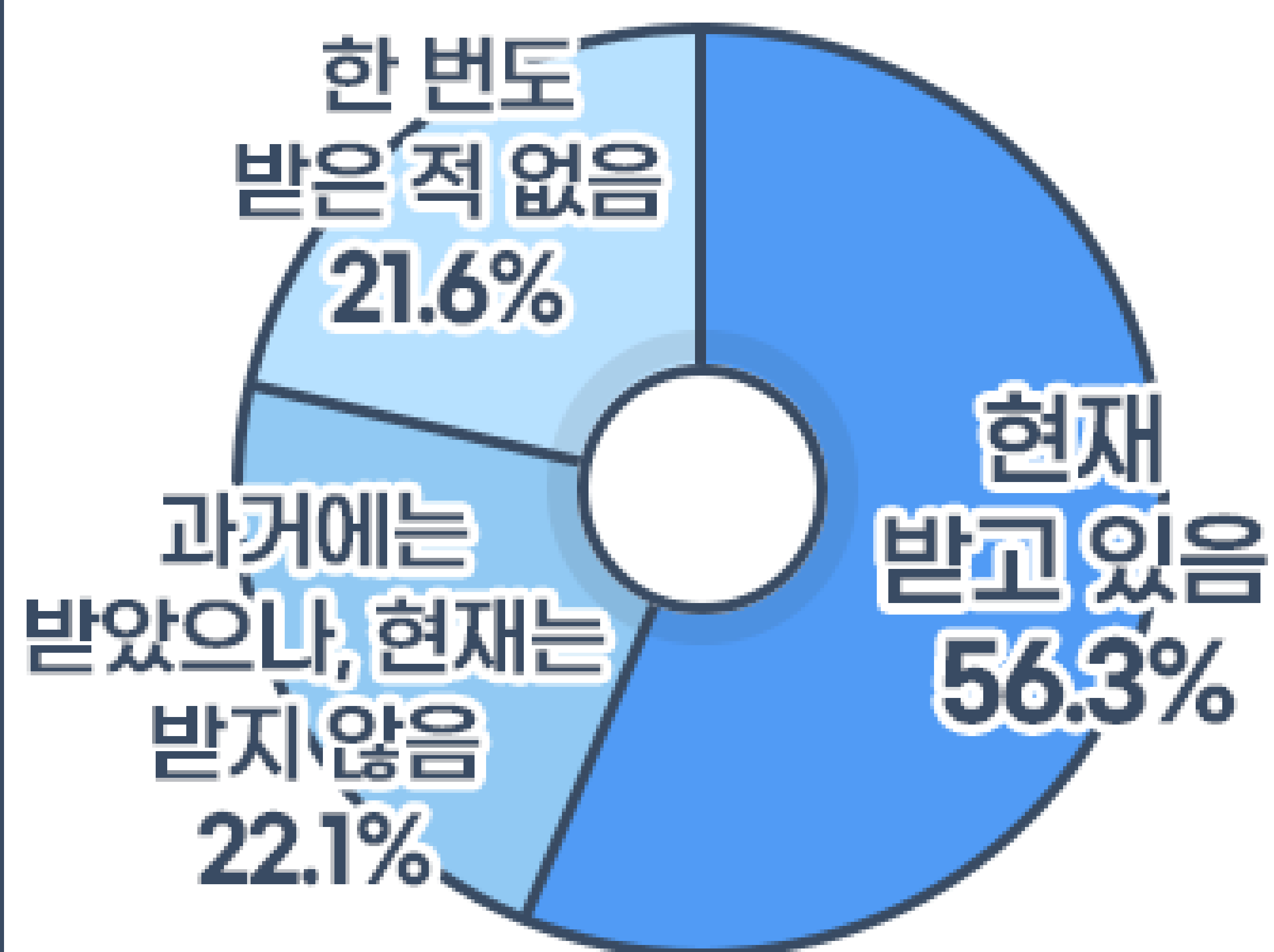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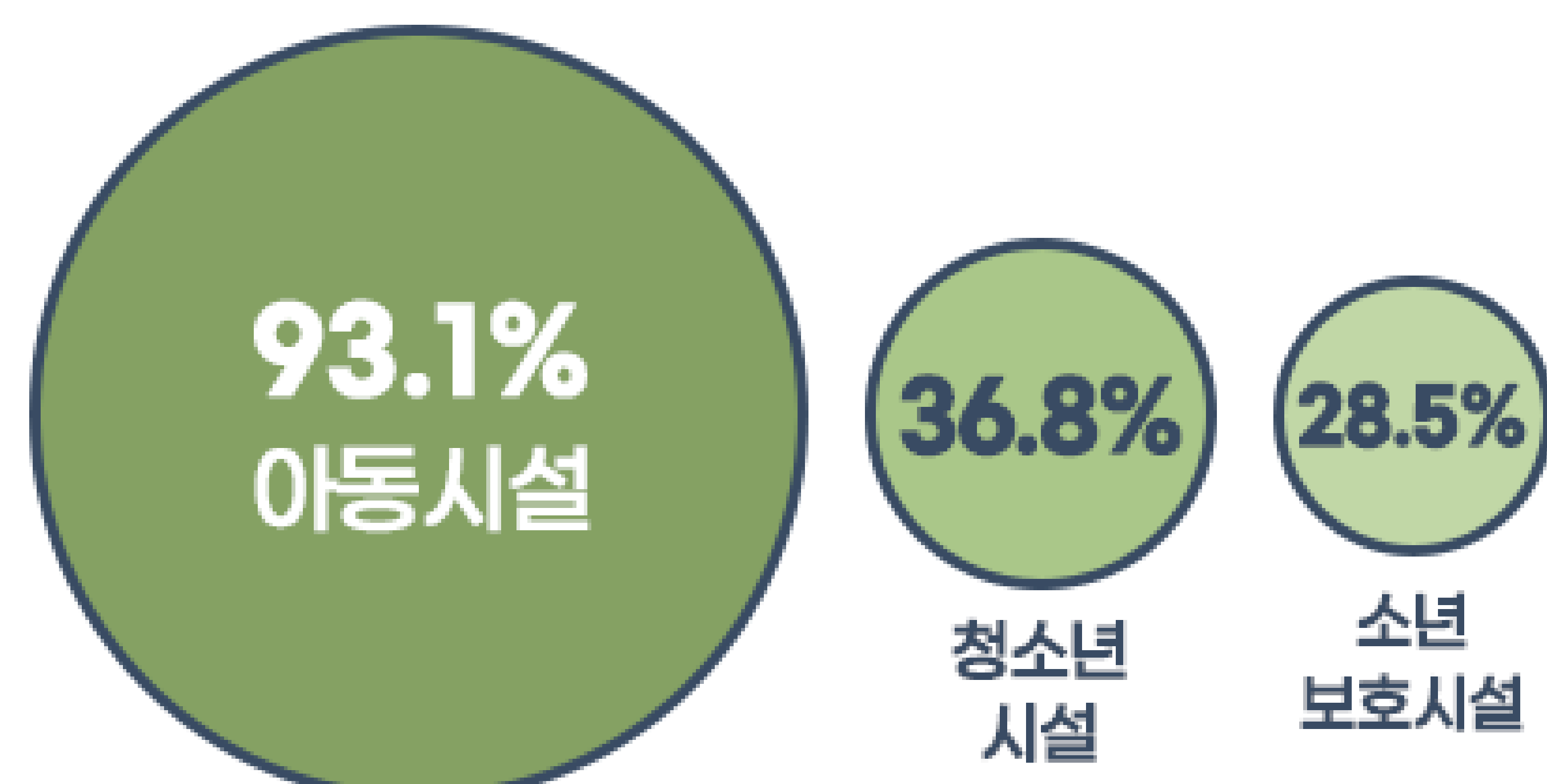
시설퇴소 청년* 절반 이상 “자립수당 받은 경험 있어”

*시설퇴소청년(만 19세~34세) 대상(총 2,661명)

자립수당 수령 경험



퇴소시설 유형별 자립수당 수령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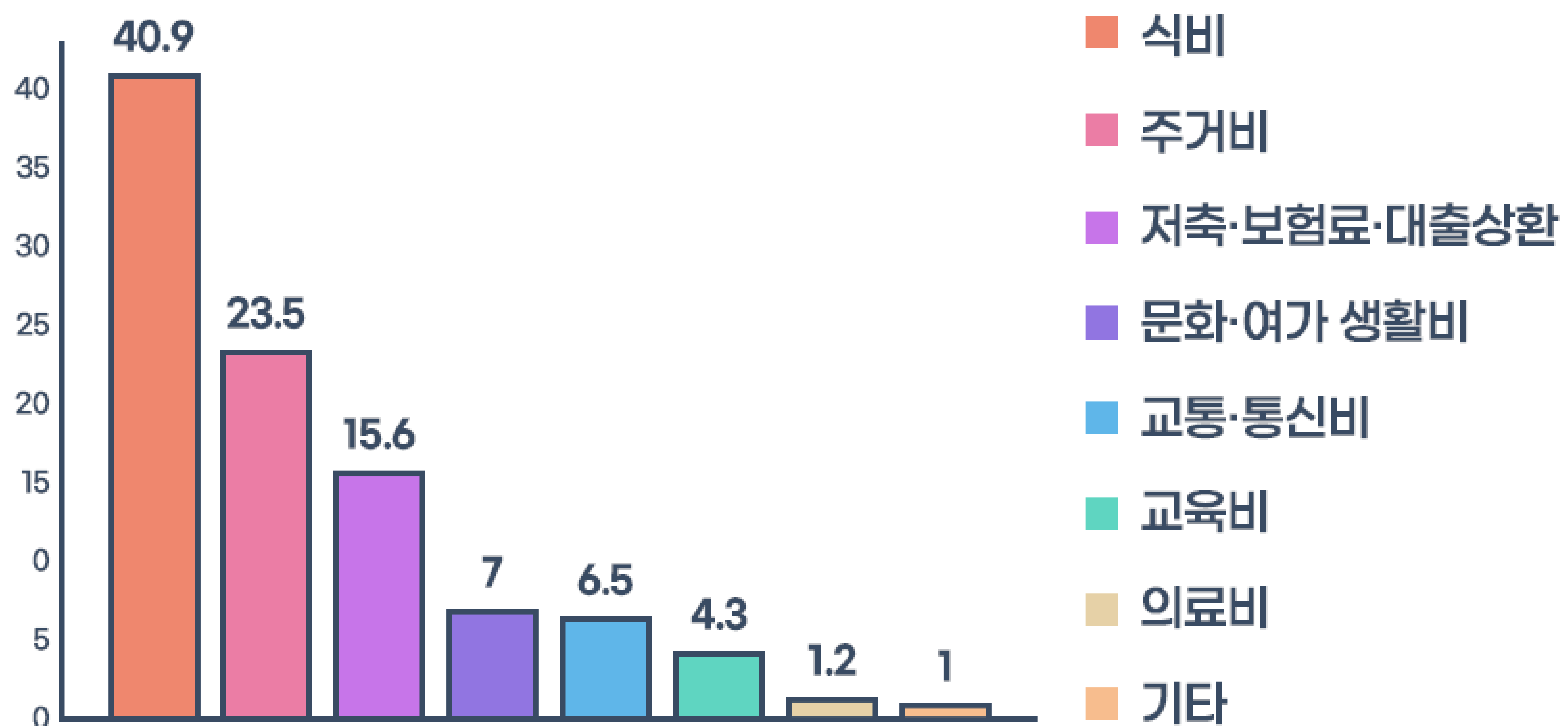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포함

시설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절반 이상(78.4%)이었고, 퇴소시설 유형 중
아동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자립수당을 수령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93.1%)으로 나타났어요.

자립수당 지출 중 식비 비중이 가장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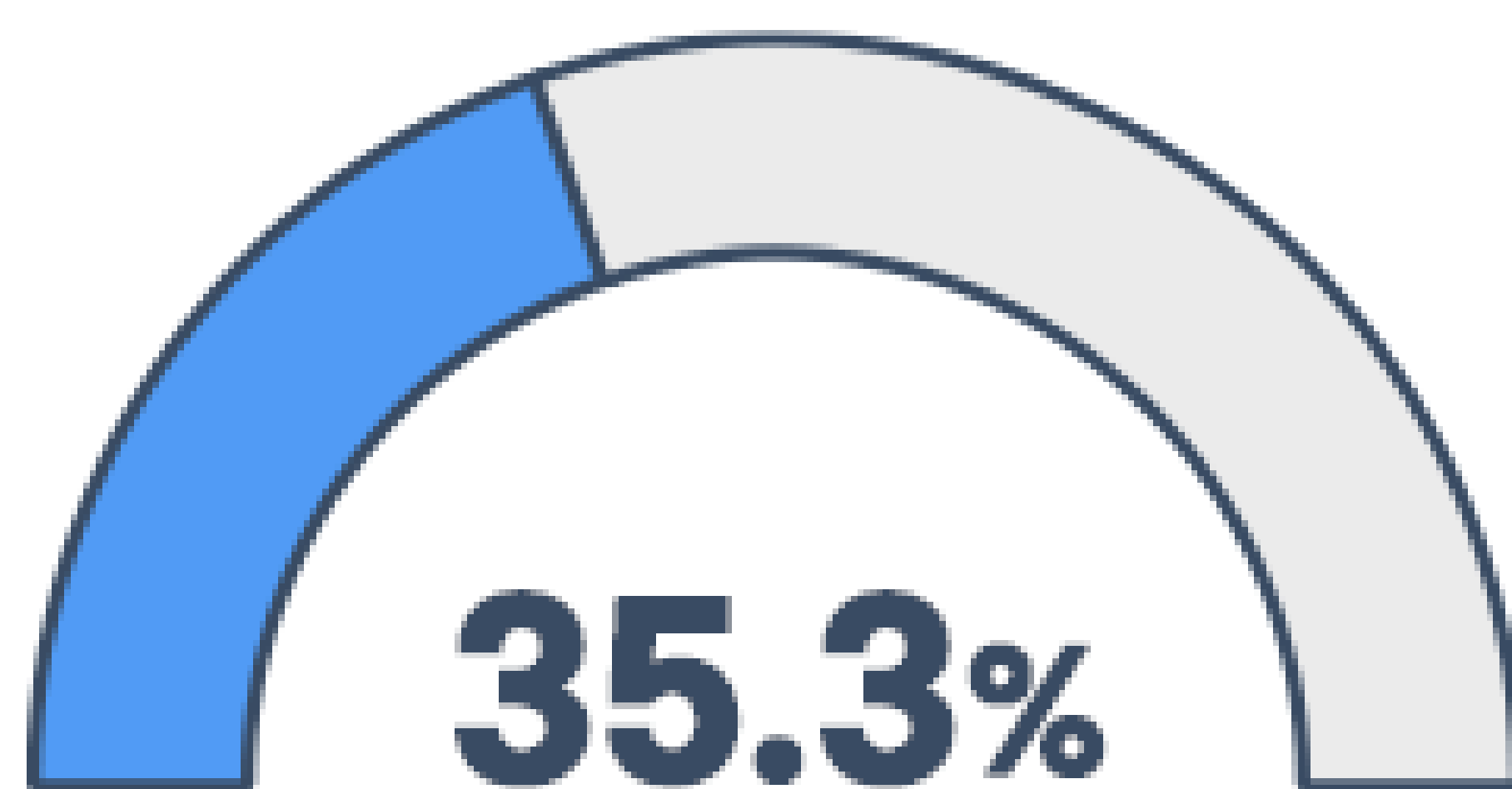
자립수당 주요 지출 항목



자립수당은 식비, 주거비, 저축 등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기본 생계비(식비, 주거비)로 자립수당을 지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경제수준 높을수록 자산 형성에 긍정적 변화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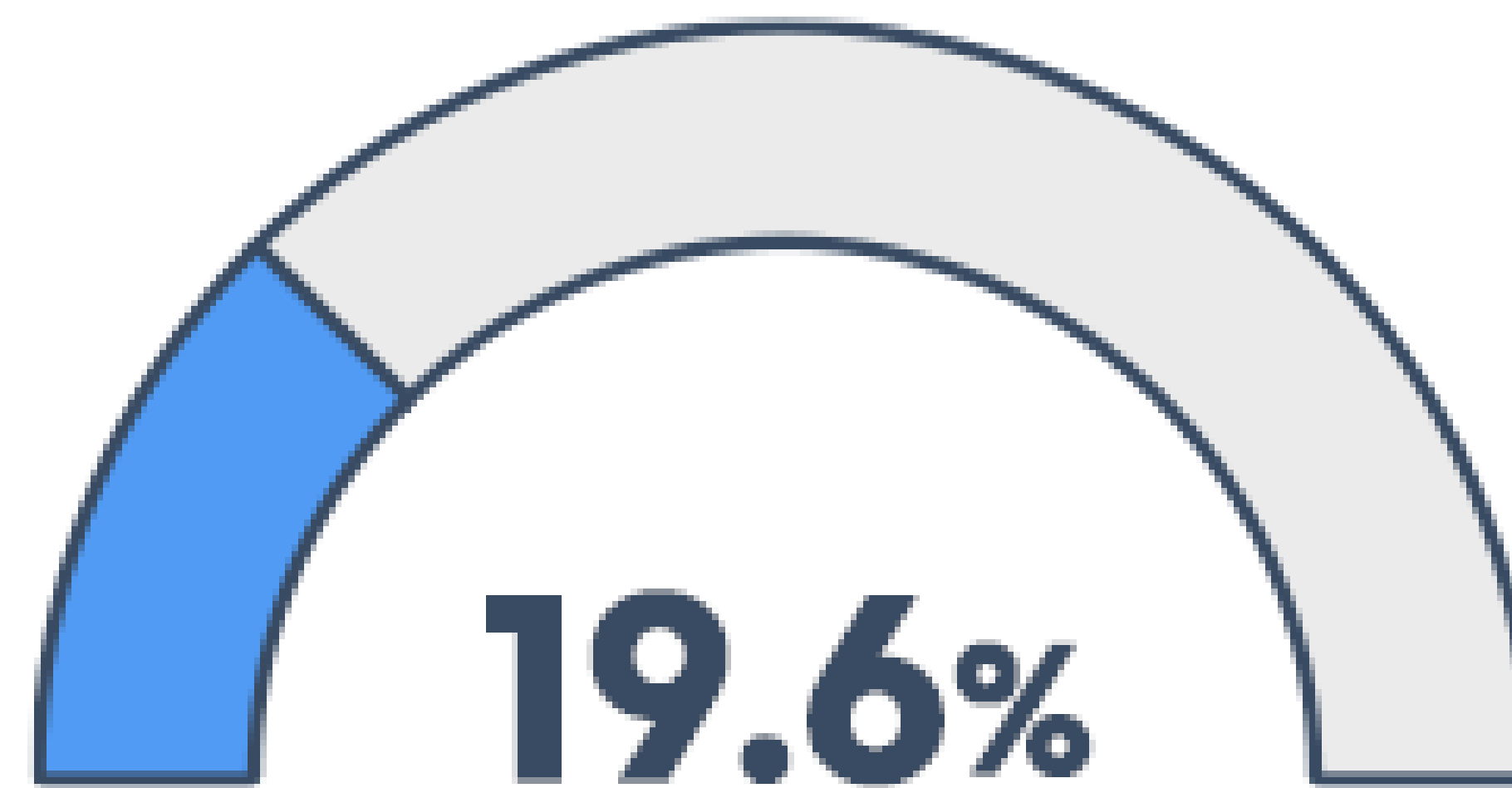
경제수준 '상'



35.3%

저축 증가/부채 감소
자산 형성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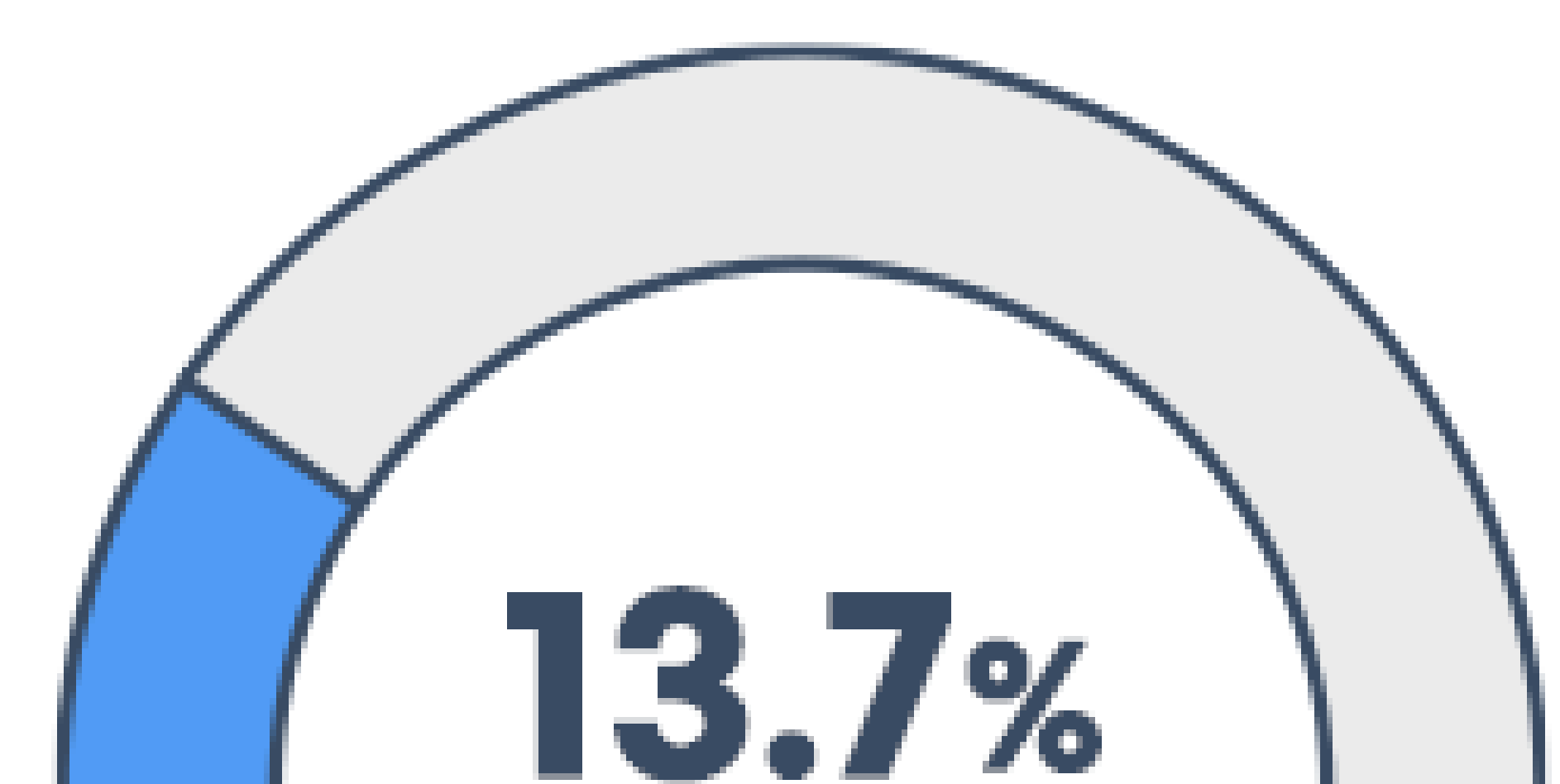
경제수준 '중'



19.6%

개인시간 증가

경제수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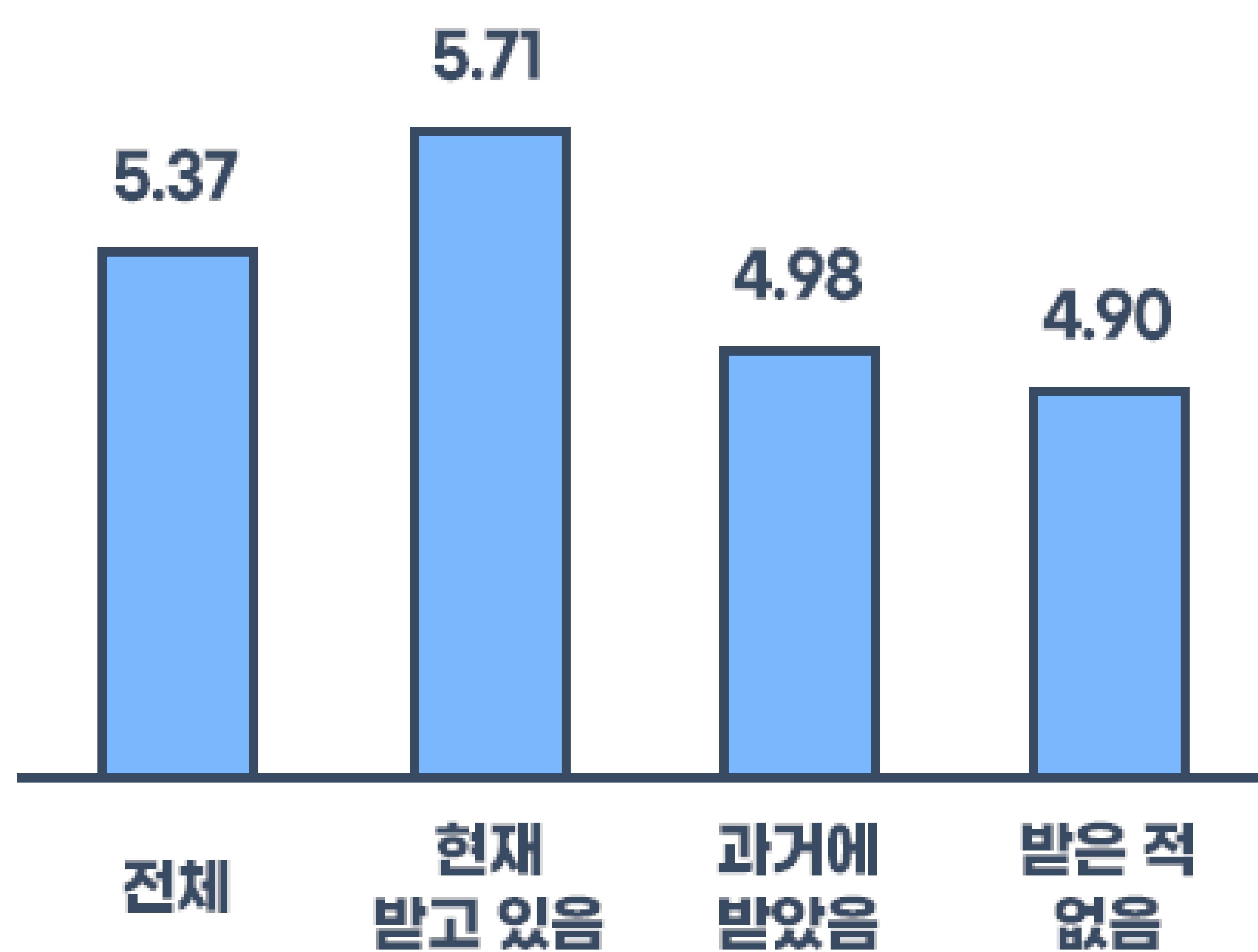
13.7%

사회적 교류 증가
사회적 고립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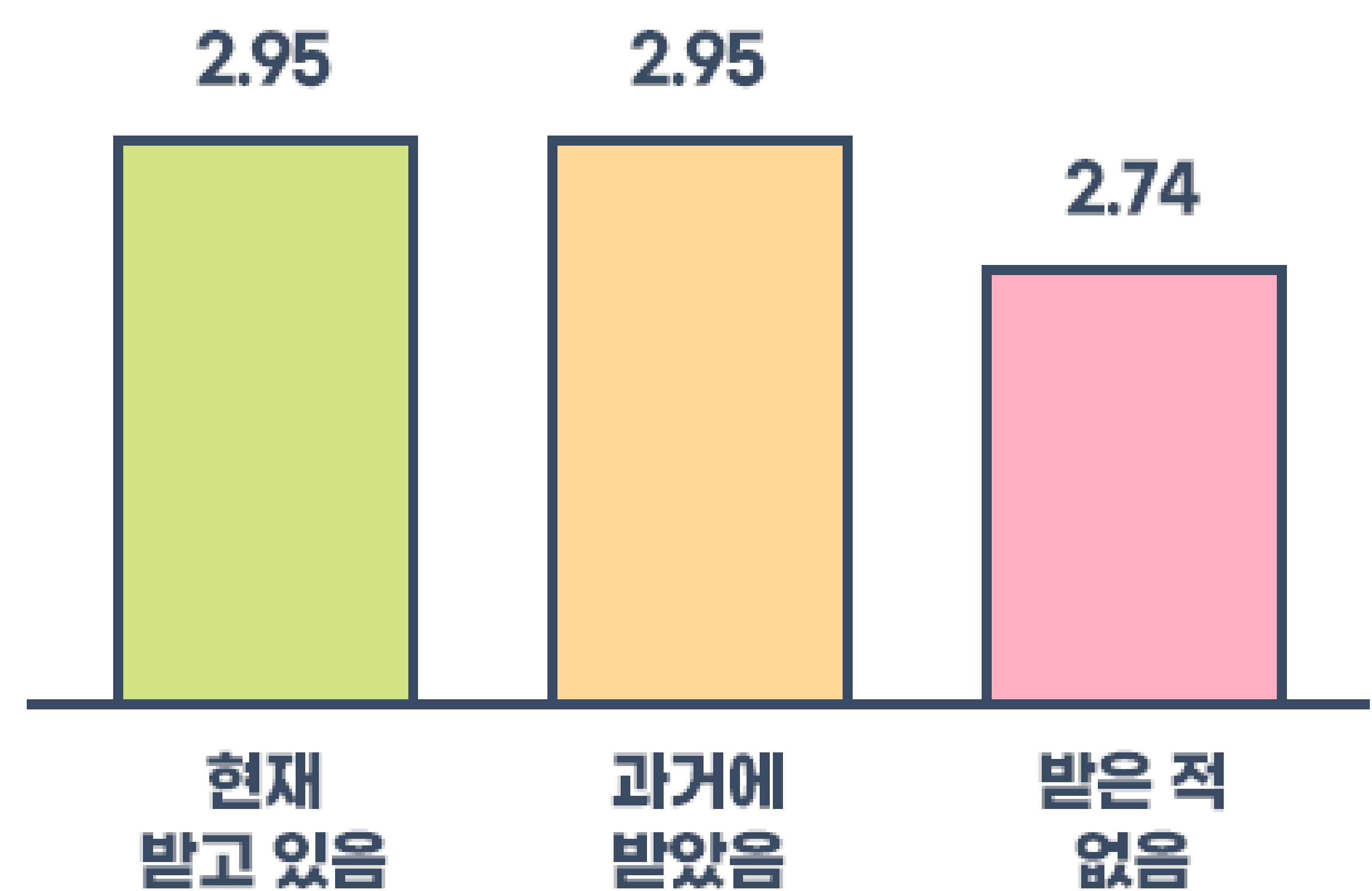
자립수당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저축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경제수준에 따라
응답 내용에 차이를 보였어요.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은 저축·부채 개선 응답이, 보통 이하 청년은
개인 시간·사회적 교류 증가 응답이 타집단에 비해 많았어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 삶의 만족도 더 높게 나타나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개인 삶의 만족도



자립지원 수당 여부에 따른
자립 성취 정도

현재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현재 자립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자립을 성취한 것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시설퇴소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함께 힘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청년종합연구Ⅲ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김승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